



# 광남일보



 현대상호, 3년 연속 영업흑자 달성 작년 7236억...매출 7조31억 역대 최대치 7	 나주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내년도 2334억 규모 국비 사업 75건 발굴 8	 "노란 유채꽃 핀 청산도 걸으며 힐링하세요" 청산도솔로건기 축제, 4월 5일~5월 4일 개최 10	 대학 교수 임용 이어 교과서에 작품 수록 정성준 화가, 초등미술 3~4학년 교재에 소개 11
--	--	--	---

조간 제780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윤력 2월 25일)

## 호남권 3개 시·도 '메가시티 경제동맹'

광주시·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경제 발전 공동 도모를 위한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36 하계올림픽·제33차 UN 기후협약당사국총회·2025 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힘을 합치고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호남권 3개 시·도는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36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지원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함께했다.

지난 2024년 7월 만에 부활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도 간 협력을 선연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2036 하계올림픽(전북 전주)과 제33차 UN기후협약 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안인) 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호남권 3개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 한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전남·전북, 경제발전 업무협약...국가대혁신 노력 초거대 AI 인프라·서해안철도·광주신산업선 공동 추진

이에 따라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도록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중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라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bul@gwangnam.co.kr

## 李 2심·尹 선고...격랑의 슈퍼워크

조기대선·여야 명운 가을 선고 줄이어  
오늘 한 총리 선고 가능자 될지에 촉각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보여 '격랑의 슈퍼워크'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고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 짓는 '메가톤급 변수'여서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현재에서 진행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해지는 '풍랑계'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각각·각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각각에 힘이 실려있지만, 탄

핵 선고문에 나타날 현재의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대표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오는 28일께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선고가 늦어져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을 운영하며 현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겠다고 예고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산불재난 '심각' 단계...광주·전남도 피해 속출

21~23일 8건 발생...지나해 0건과 극명한 차이

산림청이 지난 22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 23일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를 보면 지난 21~23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오후 6시 기준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진화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서 산불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행히 불로 인한 대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면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야산으로 번졌고, 25분 뒤인 오후 1시 50분께 완전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4시 20분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산에 불이 난 것 같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01명, 헬기 7대를 비롯한 장비 20대를 투입해 6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보성에서는 같은 날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지난 22일 12시 42분에는 전남 보성군 노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5시간 8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주불을 잡았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진화작업 중이던 대원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면에 계속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야구의 계절'...KIA 홈 개막전 '구름관중'

NC와 1승1패...김도영, 허벅지 부상

올 시즌 프로야구가 동면을 깨고 드디어 개막을 알렸다. ▶관련기사 12·15면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만500석이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찬 가운데 열렸다. 개막전 여섯번째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팬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날 경기에서 KIA는 NC를 9-2로 대파, 역전승을 일구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23일 오후 열린 2차전에서는 대두수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5로 아쉽게 패배하며 주말 2연전을 NC와 나란히 1승씩 나눠 가져갔다.

1승 1패 승률 5할을 기록했지만 약재가 겹쳤다. KIA타이거즈 영건을 넘어 간판으로 성장 중인 김도영이 개막전에서 1루 베이스를 돌아 다시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